

ISSN 1229 - 6198

大韓醫療氣功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KI-GONG ACADEMY

VOL. 3. NO. 1, 1999.

大韓醫療氣功學會

氣功學은 韓醫師의 專門領域입니다.

근래에 氣功에 대한 관심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氣功學은 생명현상의 기본 요소인 氣의 작용을 생명역학적으로 체계화시킨 학문으로, 일찍부터 한의학의 한 분야로 연구개발되었습니다. 원래 氣는 자연현상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우주의 모든 사물은 氣의 운동변화로부터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인체의 생명 활동도 똑같이 해석됩니다.

韓醫學은 氣醫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韓方臨床에서는 人體 氣의 調節이 바로 韓醫學 治療의 核心입니다. 그러므로 黃帝內經에서는 인간의 진기를 유양하고 양생의 도를 강조했습니다.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은 전인류가 염원하는 바로, 장수의 비결은 바로 氣의 조절 여하에 달려있으며, 기공의 실천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氣의 調化는 인체에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속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활과 의식까지도 자연과 合一한다는 全一概念을 바탕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적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氣功에 대한 관심이 높은 오늘의 시점에서 특히 “氣功學”은 중요한 社會醫學으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養生이야말로 인류가 염원하는 건강사회, 복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학적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氣功이 韓醫學 내부의 학문으로만 머물지 말고 사회의학으로 保健養生에 응용되어 생활속의 韓醫學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의 현실이 氣功을 빙자한 邪術이 國民醫療秩序를 紊亂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학술적인 면이 강조되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현대적 시각에서의 검증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꾸준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때 大韓醫療氣功學會의 學會誌의 발간은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더욱 더 醫療氣功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氣功學이 韓醫師의 고유한 전문영역임을 확고히 하는데 선도역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 5월

大韓韓醫學會 會長 박 찬 국

韓醫學은 氣의 醫學입니다.

韓醫學은 “氣의 醫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韓醫學에서 氣는 生命의 근원으로 서 人間の 五官으로 포착되는 존재 또는 에너지체이며, 또한 氣는 육체를 구성하는 극미한 요소입니다. 生命현상은 몸 안에 충만하여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는 氣에 의해 발현됩니다. 韓醫學에서는 氣를 排除하고는 人體의 生命活動을 說明할 수 없고, 疾病의 治療는 모두 經絡의 氣를 調節하여 이루어집니다.

鍼灸, 附缸, 方劑 등의 치료법은 그 바탕에 氣라는 인식이 깔리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의학적 치료법은 모두 氣의 치료라고 볼 수 있고, 氣를 이용한 治療는 韓醫師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韓醫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 뿐 아니라 韓醫師조차도 氣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氣功과 韓醫學을 별개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대체의학 중의 하나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氣 관련단체에서 氣의 내용보다는 외형만 따라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로 소위 氣功治療라는 것을 행하고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氣를 逆行시키거나 疾病을 惡化시키는 등 그로 인한 갖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氣가 우리 韓醫學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氣功治療는 韓醫師에 의해, 韓醫學的 診斷에 따라, 患者의 病態와 體質 그리고 特性에 適合하게 處方되고 施術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韓醫師가 직접 氣를 修練하여 韓醫學의 治療法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氣功師를 指揮監督할 수 있는 위치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 氣의 概念定立과 氣를 객관적, 임상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學會誌 發刊을 계기로 氣功이 韓醫學의 기초분야로 인식되고 氣功治療의 臨床效果에 대한 研究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大韓韓醫師協會 會長 최 환 영

氣功의 연구와 이를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韓醫學의 原典인 黃帝內經에서는 “聖人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이라 하여 병의 예방을 강조하였고, 扁鵲은 병들기 전에 치료하는 의사를 上醫라 하였습니 다. 이렇듯 韓醫學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여 낫게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보았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국민보건의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는 養生·導引을 통해 가능하며, 韓醫學이 국민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고 보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현대 의학의 풍토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통한 치료를 지나 서 면역력 강화를 통한 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였습니다. 면역력의 강화 라는 부분은 “氣”라는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氣의 영역은 한의학 기초 치료원리인 調氣와 맞물려 현대 의학으로부터의 특성화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 각국과 러시아에서도 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기공연구소를 설립하여 이에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의 행해지고 있는 기에 관한 연구 및 활성화 방안은 미흡하며, 얼마되지 않는 이에 대한 부분도 방향을 잘못잡고 있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정신과학 육성법”을 만들고자 했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전반의 氣에 관한 관심에 비해 氣에 대한 이해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韓醫學 領域에서 氣에 대한 연구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大韓醫療氣功學會가 결성된 이래로 氣功에 관련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한의학 영역에서의 기에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계 그리고 大韓醫療氣功學會의 여건상 보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기공관련 임상논문을 낼 수 없고, 또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진행할 관련 기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문헌 논문 뿐만이 아닌 임상관련 논문을 실고자 하는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으

로의 전망이 밝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들과는 달리 氣功은 직접 修練을 통해서만이 研究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氣功의 氣字는 精神之氣, 經脈之氣, 呼吸之氣의 세가지 의미가 있고, 功은 낙숫물이 한방울이 화강암 바윗돌을 뚫듯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 정성을 들인다는 뜻이며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氣功의 연구와 이를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자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의계 전반에서는 기공에 좀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학회여러분들과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9년 5월

大韓醫療氣功學會 會長 김 기 옥

目 次

◆ 激勵辭

氣功學은 韓醫師의 專門領域입니다.

대한한의학회 회장 박 찬 국 i

◆ 激勵辭

韓醫學은 氣의 醫學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환 영 ii

◆ 發刊辭

氣功의 연구와 이를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대한의료기공학회장 김 기 옥 iii

▶ 氣功養生家の 呼吸修練에 對한 文獻的 考察

김문희, 필감매, 김경환, 윤종화, 김기옥 1

▶ 周易參同契에 나타난 氣功修練에 關한 考察

박연주, 김성삼, 박재수, 박찬국, 이기남 23

▶ 氣功文獻學의 方法論에 對한 考察

이동현, 김경환, 맹웅재, 윤종화 57

▶ 養生과 老化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위영택, 김길수 77

▶ 女性 下腹部 腫塊에 關한 文獻的 考察

김여옥, 이현경, 최은정 90

▶ 胎敎에 對한 文獻的 考察

전진우, 이호승 105

▶ 滑胎(習慣性 流産)에 對한 原因別 治法 處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이상훈, 최은정, 안병상, 신조영, 이시형	120
▶ 産後에 쓰이는 補虛湯, 失笑散, 生化湯에 關한 文獻的 考察 박령준, 서종훈, 박용기	139
▶ 産後風의 治療에 關한 臨床報告 김영미, 최은정, 이호승	162
▶ 産後調理의 韓·洋方的 考察 박선민, 황종욱, 백승희	172
大韓醫療氣功學會 會則	186
중앙위원회 명단 및 주소록	190
지부장 명단 및 주소록	191
대한의료기공학회 명단 및 주소록	192
학회지 논문 투고 요령	198
기공을 수련할 의료인을 모집합니다.	199